

2015년

就任辭

2015. 7. 2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National Youth Marine environment Center

사랑하는 우리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하는 원장 조두원입니다.

저는 이곳 영덕 지품이 고향으로서 구미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36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4년 정도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원장 자리에 응모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재직시 학교폭력대책 등 청소년 업무를 남다르게 추진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양환경 체험센터는 전임 유홍룡 원장님과 여러분들께서 기초를 탄탄하게 잘 닦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유홍룡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바탕위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세계 일류 수준으로 자라도록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해양환경 체험센터도 “세계일류”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해양 안전교육에 주력하고, 다양한 특성있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서 다시 찾고 싶은 해양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해양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르는 분야는 과감히 전문가인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의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 예산과 정책이 허락하는 한, 모든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면, 최대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안전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공식생활을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만 뒤돌아 보았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체험과정의 안전은 물론이고 주위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를 거쳐 간 청소년들이 바다뿐만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한 몸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고객들이 잘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뛰자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함께 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지역기관단체와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갑시다. 그래서 지역민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홍보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사업 목표를 잘 세워서 어떤 경우에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영성과는 우리의 능력을 고객들로부터 평가받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센터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저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청소년 시절 먹고 살게 없어서 가출도 해보고, 신발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교수님 소리를 듣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을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로부터 만족도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원장이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책입니다. 우리 센터는 여러분 모두가 원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 창의, 책임 정신을 발휘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현장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제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 둘이면 이룰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갑시다. 세계 일류 수준의 체험센터로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15. 7. 2.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원장 조두원

